## 지역 소식통

### 정읍 내장산 얼음 축제 이상기온으로 일정 변경

'2023 정읍 내장산 얼음 축제'의 일정이 이상 기온과 우천으로 인해 일부 변경됐다.

정읍시는 평년보다 높은 이상 기온과 우천으로 인해 얼음조각을 이용한 전시와 체험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대행사는 예정대로 17일까지 진행된다.

행사는 드론쇼와 미디어 융합 LED 트론 퍼포먼스, 가족영화 상영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상고온과 우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축제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며 "축제가 축소됐지만,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고창산 생강 액상차 개발

고창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심덕섭 고창군수)가 고창 생강을 활용한 음료제품을 개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연구소는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2022년 농산물 활용 가공제품 시범사업에 농업회사법인(주)고창애(대표 김영재)와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농업회사법인(주)고창애는 베리류, 야채, 과일, 산야초 등을 가공하여 주로 판매하는 기업이다. 기존 파우치 제품에서 소비자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345ml의 PET 병타입으로 제품을 출시해 이달부터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품은 자사 홈페이지(http://www.gochangfarm.co.kr/)를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추후 고창군 농특산품판매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이사장(심덕섭 고창군수)은 "고창군에서 재배되는 다양한 농특산물이 연구소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아져 소비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품으로 인정받아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장애인 복지, 행복한 동행 시작

## 고창군, 144억원 투입… 복지향상 나서

고창군이 올해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등 41개 사업에 144억원을 지원해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나선다.

먼저, 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장애인체육관·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에 속도를 낸다. 앞서 지난해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사업비 10억원으로 건축기획용역과 설계용역 진행해 사업을 본격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연금은 전년대비 5%로 인상된 월 최대 32여만원의 기초급여를 지원한다. 18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증장애인에게 전년대비 50%인상된 월 6만원을 지급해 장애 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돕는다

또 성인 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을 확대했다.

65세 이후 노인 장기 요양수급자로 전환해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임금도 상향조정(전일제 기준 9.5%)했다.

특히 고창군은 지난해 전북도 최초로 최중증장애인 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전북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사업을 진행했다. 참여 장애인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올해도 사업이 계속된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지원(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을 활용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조성사업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 관내 음식점 및 상가 등 주출입구의 턱낮추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신장장애인에게 혈액 투석비,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 장애등록진단 및 검사비,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 장애인신문보급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다. /고창군=김영식 기자

#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 지방소멸 위기극복 모범사례

##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고창군 선정 축하해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이 '고창군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 관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범사례로 수많은 지자체가 본받을 만하다"고 축하했다.

김상석 단장은 지난해 1월부터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을 이끌고 있다. 기획단은 지자체가 도시재생 계획에 다양한 사업들을 담아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김상석 단장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지역의 경제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규모도 가장 크고 사업요건도 까다로워 그간 군(郡) 단위에선 공모 신청한 사례도 없었다"며 "심덕섭 군수와 노형수 부군수,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와 기획단 사무실 문이 닳도록 찾아오셔서 자문을 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고창군이 청년·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개발공사 등 민간 협력 파트너를 찾아낸 것은 '신의한수'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짧은 기간안에 내실있는 사업계획안이 만들어졌고 공모 평가위원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으며 최종 선정되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고창군은 터미널 일원(8202㎡)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661억원(국비 250억원, 도비 42억원, 군비 125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00억원, 기타 1044억원 등)을 들여(국비 70%, 도비 10%, 군비 20%) '청년들이 돌아오는 활력넘치는 고창'을 만든다.

이에 더해 터미널에서 고창고등학교까지의 협소한 도로를 전선지중화, 친환경 보행 등을 통해 '추억의 거리'로 조성하고, 곳곳에 노천카페와 포토존 등을 설치해 '디자인 특화 거리'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김상석 단장은 천안시의 사례를 들며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설명했다. 김상석 단장은 "도시재생 사업은 지방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0~59개월 아동 매월 10만원 육아수당 지급

정읍시가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돌봄이 필요한 영아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0~59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1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역화폐(정읍사랑 상품권)로 지급되며, 최대 60개월간 총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2018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출생한 아동의 친권자다.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읍시에 거주해야 하며, 전입한 아동일 경우 전입일을 기준으로 친권자의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상시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녀 출생 초기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수혜자 입장에서 매우 크고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 육아수당을 통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양육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청소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 "쓰레기 감량에 적극적 동참"

## 정읍시, 설맞이 청소 종합대책 추진 '시민 불편 최소화'

정읍시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청소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설 명절 전후와 연휴 기간 중 생활쓰레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거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쾌적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읍면동별 설맞이 일제 청소와 환경정비 활동을 시행하고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특히, 연휴 기간 '주민 불편 신고센터(☎063-539-8141~5)'와 '특별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쓰레기 수거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설 연휴 기간 중 종량제 규격봉투와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는 정상 수거할 계획이다. 단, 일요일인 설 당일 22일은 휴무일로 쓰레기 배출 자제를 당부했다.

연휴가 끝나는 25일에는 가동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연휴 기간 적체된 쓰레기를 일제 수거하고, 시가지 마무리 집중 청소를 통해 시민들의 원활한 일상 복귀를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쓰레기 감량과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도·시·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대·소형마트 등 유통시설에서 판매되는 명절 선물세트의 분리배출 표시 여부와 과대포장 행위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쓰레기로 인한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시민들께서도 명절 음식을 알맞게 준비하는 등 쓰레기 감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온라인 접수 시작

부안군은 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지원 수혜자를 50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선발한다.

이 사업은 청년 포럼 및 부안군 사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된 사업으로 2021년 전북도에서 부안군이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지난 2021년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85명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총 6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 달라진 점은 당초 근무시간안에만 접수 가능했던 방문접수 방식을 온라인접수방식으로 바꾸어 청년들의 불편함을 완화했다는 점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19세~39세(1983년생~2003년생)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150% 이하(월세),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매월 최대 10만원으로 최대 2년간 지원한다.

거주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법상 주택(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임차보증금 4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월세)이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직과 공무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안=김석진기자